

나는 환경보호 소녀

- 1 지자체명 라오닝성
- 2 발표자명 판나웨이

3 발표 요지

저는 선천적으로 손발에 장애가 있지만 장애자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친구들과 함께 놀고, 또 친구들과 같이 장난쳤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지금까지 저는 쭉 환경보호활동에 참가해, 환경을 위한 작은 보호병사가 되었습니다. 라오닝성, 시의 방송국 등의 뉴스는 몇 번이나 저를 취재해,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저에 대한 환경보호 실적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잘 모르는 어른이나 청소년 친구들이 「너가 그 ‘환경보호 소녀’ 니?」라고 친절하게 말을 걸어 줍니다. 이는 여러분이 저의 오랜 환경보호활동을 인정하시고 칭찬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환경보호 소녀”가 됐을까요?

5년 전,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저는 「녹색 생활(친환경적인 생활)에 들어가 폐건전지를 수거, 환경보호에 관한 작문에 응모하는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그 날, 귀가 길에 2개의 폐건전지를 주었습니다. 폐건전지의 위해(危害)를 밝혀, 환경보호에 관한 작문을 쓰기 위해서 저는 환경보호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책방, 도서관에도 가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또 호기심에 끌려 폐건전지를 해체해 그 속의 유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에 있는 사용이 끝난 전지를 모아,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후, 겨울방학, 여름방학에 폐건전지를 줍고, 흙에 묻힌 전지를 파냈습니다. 그런데 제 손가락은 성한 게 없어서 건전지가 자꾸 떨어져서 굴러가 버립니다. 그 때 저와 함께 줍는 친구도 있었지만, 드물게 어떤 아이의 보호자가 「줍지마. 깨끗한지 더러운지 모르잖아.」라고 했습니다. 손이 더러워지면 간단하게 씻을 수 있지만 폐건전지가 토양을 더럽히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생길까요!

이와 같이 방학 동안, 백 개 정도의 건전지를 주었습니다. 저는 또 낯은 식품용기에 지구를 그려, 그 주변에 「어머니와 같은 지구를 보호하는 것은 인류의 성스러운 직책이다.」라고 써서 이를 폐건전지 수거함으로 했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모범이 되었습니다. 잇달아 자신들의 폐건전지를 저에게 건네어 주었습니다. 2년 남짓 사이에 저는 함께 약4천개의 건전지를 모았습니다. 저의 행동은 시의 환경보호선전교육센터의 사람들에게 주목과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환경보호에 관한 자료를 보내 주셨고, 저의 환경보호활동을 항상 격려하고, 도와 주셨습니다. 저는 또 환경보호 지식을 알렸습니다. 이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환경보호활동 계몽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환경보호에 주목해서 자신들 주변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교육부문은 저의 실적을 양귀시의 향토교재로 채용했습니다.

저는 손발에 장애가 있는 것을 극복해, 적극적으로 환경보호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그 실적이 모두의 주목을 모았습니다. 양귀시의 환경선전교육센터의 추천으로 저는 “녹색별”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수상식에 참가할 때 저는 《중국 환경보》주간지의 작은(나이) 기자로 채용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칭하이성에서 실시된 흥미진진한 환경보호 여름캠프(여름방학때)에 초대받아 참가했습니다. 그 때부터 “청공녹지 백수청산(靑空綠地、碧水靑山)”은 저의 아름다운 동경(그리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같은 황허 강의 원류를 보고 놀란 것은 그 강물이 거울같이 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황허 강 하류의 더러움은 확실히 인간들의 생산과 생활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 때 저는 고향의 어머니같은 강을 떠올렸습니다.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저는 지금 환경을 위한 작은 보호병입니다만, 장래에도 계속 환경보호 자원봉사를 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저는 이번 활동을 통하여 국가환경보호총국 지도자의 저희들에 대한 희망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또 학교에서는 자신이 만든 시 《작은 수거함, 나의 좋은 친구》를 낭독해서 보다 많은 반친구들이 스스로 환경보호행동에 참가하도록 영향을 줘, 학교 선생님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환경보호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저의 지지자이고, 적극적인 참여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머니는 저의 환경보호 고문으로써 환경보호활동을 어떻게 해야 더욱 잘 할지에 관해 항상 저를 도와 주십니다.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물절약”, “전기절약” 실을 집의 수도꼭지와 전원 스위치 옆에 붙였습니다. 집안 어른들에게 에너지절약 전구를 사용하고 마이쇼핑백을 지참하기를 권합니다. 인이 없는 세계를 사용합니다. 집에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할 때 저는 윗사람에게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벌채를 지지하고 삼림자원을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고 알려 줍니다. 일회용 물건을 적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호에 공헌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환경보호 활동들은 이미 저희집의 생활습관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보호를 알리고, 환경보호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저는 스스로 생각해 그림을 그리고 문자를 써서, 환경보호를 주제로 한 벽보를 만들었습니다. 더 많은 친구들이 환경을 위한 작은 보호병이 될수 있도록, 저희 학교가 빨리 “녹색학교”가 되도록, 저는 세뱃돈으로 베이징의 환경보호 관계 서적을 우편으로 사서 학교 도서관에 선물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환경보호의 작은 기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의 환경보호활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히 주변의 녹색소비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내의 큰 백화점, 시장, 슈퍼마켓을 돌며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이런 것은 지도자와 영업원의 허가와 지시를 얻었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조사 보고서를 썼습니다.

환경보호에 참여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저를 어렸을 때부터 사회와 대자연으로 인도했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열고, 두뇌를 채웠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큰 수확은 환경보호 지식을 공부함으로써 「지구는 우리들 인류의 어머니로 우리들은 모두 지구촌의 주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인류를 위해 아름다운 녹색의 고향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일이면서 또 우리 청소년의 당연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같은 지구에 감사하고 대자연의 혜택에 감사하고 우리들의 생존 환경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하게도 인류 사이에 사랑이 있을 뿐 아니라, 인간과 환경 사이에도 사랑이 있어, 그 사랑을 바쳐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방법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와 같은 지구의 건강을 위해 행동해, 여러분에게 알려진 “환경보호 소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오늘 동북아 청소년 환경심포지움에 참가하신 각 지도자, 친구들에게도 배워, 어머니와 같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녹색 향토를 만들겠습니다. 지구에서는 여러 나라들의 많은 선배들이 환경보호사업에 헌신하며, 많은 또래 친구들이 환경보호사업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공동의 노력으로 어머니와 같은 지구는 영원히 건강(아름답다)할 것이라고 믿습니다.